

디지털한국학 아카이브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중심으로-

A Study on a Practical Use of Digital Archive for Korean Studies

- Focusing on the “Grandculture Project” of the AKS

심 재 석¹⁾

1. 프롤로그
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사업내용
3.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과 디지털민속지(Digital Ethnography)
4. 원자료로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5. 에필로그

초 록

이 논문의 목적은 디지털한국학 아카이브의 한국학연구의 원자료(raw data)로써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 국내외 한국학자들이 한국역사, 문화, 지리, 민속관련 한국학자료의 접근과 검색이 용이한 홈페이지에 실린 다양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교육, 연구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사업의 개요를 살펴본 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텍스트, 사진, 멀티미디어 등으로 구성된 자료를 효과적으로 국내외 한국학자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텍스트에서 하이퍼텍스트로 전환되는 과정과 현재 구축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활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이 가지고 있는 한국학 연구와의 상관성을 조망해 보고 디지털민속지로서의 한국향토문화대전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사업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라는 국책사업이 2003년부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으로 거듭나서 급속한 속도로 소멸되어가는 한국문화의 다양한 지역문화자료들의 보존을 위해 디지털화시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대한 작업이다. 지면이 아닌 화면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넘나드는 인터넷이 가진 장점인 쉬운 접근성, 개방성으로 현재 한국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방대한 양의 사진, 원고, 동영상, 지리정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얻는 자료는 국내외 한국학 관련 연구자들이 문헌에서 얻기 힘들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문헌이 아닌 다른 형태의 한국학 연구자료로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한국학연구의 중요한 원자료로서 충분한 활용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디지털기술은 매우 급속한 속도로 발전한 반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하는 아카이

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민속학전공 박사과정

브의 구축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이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는 기술은 이미 궤도에 올라와 머리 속에서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을 구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금부터 필요한 작업은 매체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아카이브를 채워줄 내용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통해서 채워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무엇보다도 한국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의 몫이다. 따라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한국학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업이며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한국학의 글로벌화하는 초석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동시에 21세기 새로운 한국학연구의 지평을 열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aiming on a possible practical use of the Grandculture project as raw data of Digital Korean Studies for Korean scholars around the globe. I will suggest that how to take advantage of the digital archive which is holding Korean history, culture, geography and folkloristic data for scholars; how they can manipulate not only for their research but educational purpose. First of all, I will take a brief explanation on the “Grandculture Project”, and then, I will show some possible practical usages on how to utilize the Grandculture homepage that is holding tremendous amount of data such as text, photographs, illustrations, and even video clips about Korea. While I am describing about the homepage, I will also arise some points on pros and cons on the homepage. In addition, I will point out some possibilities on the homepage which is already on the web about a regional culture on the Grandculture homepage.

I will try to define what the Korean Cultural Contents are; and how to make a strong bondage between Korean Studies and Digital Archive. As a Digital Ethnography, the “Grandculture Project” might be an excellent example of that can be accessed Korean Cultural Contents easily anywhere in the globe where the Internet service is available. The cradle of this project was the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which was a huge project that is collecting and preserving identical Korean cultures which were spread out but disappearing in Korea. It had been started as a national project since 2003. The project is aiming to collect disappearing regional culture which are various but identical cultural elements on Korean fundamental culture. Thanks to those efforts, we can easily access the homepage and get Korean culture easily. Where the internet is accessible, the archive is open to anyone. Therefore, uncountable data can be shown on the computer screen via Internet which is comparatively hard to get some data regarding Korean culture in the textbook. As a different form of

reference for Korean Studies, “Grandculture Homepage” is worth and takes a full advantage of Korean Studies as a raw material.

The information technology is growing at a speed of light; everything is possible thanks to the digital technology. Compare to the speed of Digital Technology, the speed of building an archive is slower. If we dream anything even if it looks impossible to make, however due to the state of art digital technology the dreams come true in these days. From now on, Korean studies scholars to take the role that we have to write and excavate some sources for the Digital Korean Studies Database. The Grandculture Homepage is the perfect place for archiving. Now, it is the tim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is matter. In the long run, the Grandculture Homepage will take an important role that can lead to a new horizon for Korean Studies. In this perspective, the Grandculture Homepage is a cornerstone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Studies for the 21st Century.

1. 프롤로그

세상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변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특히 디지털 분야의 발전 속도는 다른 분야에 견주어 볼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디지털화 되어 아카이브로 구축되어지고 있는 한국학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연구 활동에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인터넷과 전자우편을 사용하게 된 것은 1993년 미국에서 유학생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이다. 당시에는 텍스트기반의 인터넷 환경이었으며 `http://` 라는 명령어의 입력보다는 `telnet`, `elm`, `pine`, `gopher` 등 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면서 인터넷을 사용했던 컴퓨터 환경이었다. 지금처럼 GUI(Graphic User Interface)환경에서 아이콘만 클릭하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모니터를 통해 사진이미지와 음성, 동영상을 본다는 것은 지금은 보편화가 되었으나 십수년 전만해도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기술들이었다. 모니터를 통해 단순한 텍스트문자로 나타나는 결과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만족했었다. 언급한 인터넷 관련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 생소한 단어들이다. 다시 말해, 15년 전의 인터넷 환경은 마치 흑백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같고 현재의 인터넷 환경을 컬러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상상한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하던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망은 단어에 담긴 뜻 그대로 월드와이드웹, 즉 거미줄처럼 전 세계 각 나라들을 연결할 수 있는 유용한 시스템이 구축이 된 것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손가락 끝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검색창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엄청난 양의 정보가 모니터 상에 펼쳐진다. 무엇보다도 더욱 놀라

운 것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와 정보들이 매우 빠르게 웹상에 축적되어지고 있으며 원하는 정보의 상당수를 모니터 앞에서 키보드만 두드리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느냐하는 IT(information technology)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축적된 방대한 자료들을 어떻게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본 논문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의 충실도가 역시 중요하긴 매 한가지다. 인터넷도 하나의 매체의 형태이다. 매체의 특성상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믿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방대한 양의 정보들과 자료들을 좀 신뢰성 있는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얻고자하는 욕구도 당연히 생기게 된다. 따라서 광활한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원하는 포인트에서 그물을 던져서 최대한의 결과물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스킬이 된다.

정보인프라가 확장되고 개발되면서 직장, 학교, 도서관, 관공서, 가정 심지어는 이동하면서까지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²⁾에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상태이다. 이와 같은 훌륭한 인프라가 갖추어진 상황에서 예전에는 도서관에 가서 원하는 자료와 도서를 빌려서 정보를 얻고 그것을 토대로 연구 활동이 이루어졌다. 웹상에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면 그 결과물들은 하이퍼텍스트로 연결이 된다. 검색된 결과물들이 문서 내의 중요한 키워드마다 다른 문서 또는 유관한 시청각자료로 연결되는 통로로 만들어 여러 개의 문서가 하나의 문서인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하이퍼텍스트³⁾화 되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연결시켜주어서 매우 편리하게 원하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기술로 탄생한 것이 e-book 형태의 전자문서 또는 홈페이지에서 구현되는 형태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다. 또한 하이퍼텍스트가 가진 많은 장점을 활용하여 하이퍼텍스트가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의 양만큼 그 활용가치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학관련 연구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매우 많이 증가하였고 사이트가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은 실로 방대한 분량이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e-규장각(kyujanggak.snu.ac.kr),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전자도서관(www.dlibrary.go.kr),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people.aks.ac.kr) 등이 있다. 언급한 홈페이지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대체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료들과 특히 고문서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어 역사학과 고문헌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사이트 들이다.

한국학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한국학관련 홈페이지를

2) 외국 다른국가들의 인터넷 접속현황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현재 대한민국내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여건을 기준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3) 문화콘텐츠입문, 하이퍼텍스트 구현기술 김현 p.257 참조

구축한 사이트가 국가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만들어져 현재 서비스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한국학관련 홈페이지는 상당수가 역사, 문헌 분야에 치중해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한국학 연구에 보다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활용이 덜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의 자료는 한국의 근현대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한국문화에 대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잘 구축이 된 홈페이지이라고 보여진다. 무엇보다 최근에 구축된 홈페이지가 가진 장점들이 있는 이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본 논문을 전개해 나가 보고자 한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⁴⁾에는 비교적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담겨져 있다. 역사, 지리, 문학, 예술, 민속 등의 분야에 이르는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다양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구축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을 중심으로 홈페이지에 수록된 텍스트, 사진, 멀티미디어(동영상, 음향)자료들이 담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 구축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의 활용, 문제점을 살펴보고 한국학 연구와 관련된 아카이브의 게이트웨이로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사업내용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소멸되어져 가는 향토문화 보존·계승을 위해 지방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향토문화 정리 사업이 필요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지식·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21세기 문화시대를 주체적으로 선도하고자 하는 것⁵⁾이라고 설명한다. 이미 조선시대에도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등 전국규모의 향토지 편찬사업이 실시되었고 그 맥이 잠시 끊어졌다가 1970년대 이후 각 지방행정단위별로 향토지를 편찬하여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향토지 발간사업이 이어져 오고 있다.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해서 편찬한 책인 향토지는 지방문화에 대한 정보를 담아놓은 텍스트이다. 하지만 각 지역별 특색이 담겨져 있기 보다는 획일적인 구성에 다른 지역의 향토지의 체계를 답습하는 경우도 있어 향토지의 내용과 그 편차가 매우 심한 편이었다.

향토문화연구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중앙을 중심으로 한 전국규모의 사업은 특정주제(문화재 중심)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사업은 해당지역내의 향토문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체계적인 정보화시스템의 부재로 각지역간의 정보의 연계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따라서 향토문화 콘텐츠로서 고유성과 수월성이 부족하여 지식·문화산업의 발전과 연계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과거사 중심의 향토문화관련 자료의 디지털화에 지나지 않아

4)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 url, <http://www.grandculture.net>

5)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제4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지방문화 집대성 및 지식·문화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계획(안) p.1

각 지역의 생활문화의 특성을 부각시키지 못함으로써 문화산업의 경쟁력확보에 미흡⁶⁾한 상황이었다. 다양한 분야에 이르는 정보화 추세 따라서 새로운 향토지 편찬에 관한 문제제기는 약 10년 전인 1999년 제13회 한국향토사 연구 전국학술대회에서 「21세기 향토지 연구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다루어진바 있다.⁷⁾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앙이 중심이 되어 급속히 소멸, 변화되어가는 지역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 사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다음과 같은 사업내용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지방문화 관련 기존 웹 사이트가 단편적인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반면, 본 시스템은 개괄적·안내정보적 성격의 토픽에서부터 전문 지식 차원의 심층 지식 정보 데이터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술연구자에서 일반인에 이르는 광범위한 이용자의 정보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함
-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민족문화백과사전 편찬 노하우를 살려 콘텐츠의 기획 및 구성과 제작 등의 편찬 작업을 주도하고, 향토문화 관련 지역전문가 그룹은 콘텐츠의 조사 및 발굴과 기초자료 수집 작업을 담당
- 시·군·구 단위 지역별로 향토문화 콘텐츠의 조사·발굴 및 연구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콘텐츠 내용 체계를 구성.
- 이미 조사되거나 개발된 자료는 다시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신규 자료의 발굴 및 보완 조사대상 자료 개발에 주력
- 사용자 대상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상별 콘텐츠 개발 전문가의 참여유도 및 인력 양성에 주력
- 편찬기반 조성을 위한 선행 연구작업으로서 기구축 향토문화자료를 집적하여 “향토문화지식자원 아카이브”(ARCHIVE)를 구축, 전자대전 편찬을 위한 지식 전거(典據, Authority) 및 참고(Reference) 자원으로 활용토록 함.
- 향토문화를 9개 영역으로 나누어 항목을 선정·발굴하고, 연구·집필하며, 관련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집·제작함

6) 앞의 자료 p.2

7) 1999년 『향토사연구』 제12집

8)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추진방향 및 정보편찬체계 - www.grandculture.net 공개자료실

[전체 콘텐츠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 삶의 터전 (자연과 지리)	자연지리	위치, 지형, 지질 및 토양, 기상과 기후
	인문지리	취락 및 주거지, 인구, 면적, 교통/관광, 지리지 및 고지도
	동식물상	동물상, 식물상, 천연기념물과 보호수
2. 삶의 내력 (지방의 역사)	전통시대	선사시대, 초기국가시대, 삼국시대, 남북국시대(통일신라), 후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현대	광복이후
3. 삶의 자취 (문화유산)	유형유산	선사유적과 유물, 건축유적, 교통유적, 국방유적, 기록유적 민속신앙유적, 불교유적과 유물, 유교유적과 유물, 무덤,비 사적, 조각, 서화, 공예
	무형유산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공예기술, 음식과 무예
4. 삶의 주체 (성씨와 인물)	성씨	본관, 성씨집단
	인물	관리, 효자/열녀, 노비, 정치인, 행정가, 학자, 교육자, 독립운동가, 민주화공로자, 종교인, 문인, 예술인, 체육인, 경제기업인, 법조인, 의료인, 군인/경찰, 언론출판인, 시민사회운동가
5. 삶의 틀1 (정치와 행정)	정치	지방자치연혁, 정치사상/이론, 정당/지구당, 선거, 정치단체
	법제/행정	시군구행정, 읍면동행정, 사법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 교도행정, 의료보건행정, 기구/단체
6. 삶의 틀2 (경제와 산업)	경제	경제현황, 기반시설, 생산물/특산물, 경제단체
	산업	농업 및 임업, 목축업, 어업, 광공업, 전력/가스/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보험업, 운수업/통신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운동관련업
	과학	과학기술, 의약학
7. 삶의 내용 (종교와 문화)	종교	유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대종교, 도교, 천도교, 무속신앙, 원불교, 신종교, 기타종교
	교육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특수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예술	음악, 미술, 사진, 연극영화, 무용, 문화시설
	언론	신문/방송, 잡지/웹진, 출판, 협회/단체
	체육	사회체육, 경기체육, 대회/행사, 체육관/경기장, 협회/단체
8. 삶의 방식 (생활과 민속)	생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사회	사회복지, 자연/환경, 재해/재난, 지역사회단체
	민속	생업과 세시풍속, 평생의례, 민간신앙, 민속놀이, 마을축제
9. 삶의 이야기 (구비전승과 어문학)	언어	방언, 속담, 수수께끼, 금기어/길조어
	구비전승	설화/전설, 무가, 민요
	문학	고전시가, 고전산문, 한문학, 현대문학

3.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과 디지털민족지(Digital Ethnography)

민족지라고 하는 것은 인류학자가 특정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을 직접 관찰·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이다. 총체적인 관점으로 그 곳의 문화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⁹⁾ 디지털민족지는 이와 같이 인류학자가 조사한 인간집단의 생활양식을 조사한 내용을 디지털기술과 접목시켜 만들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디지털기술과 학문이 만나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것이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들이 디지털 민족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항목별로 수집된 자료의 균질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결 과제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센터에서는 향토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편찬에 관여하는 연구 인력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여겨진다. 세계 각 문화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여 분류하고 항목별로 자료를 검색하여 획득할 수 있는 문서중 대표적인 것이 HRAF(Human Relation Area Files)이다.¹⁰⁾ 이 자료집을 구성하는 것중 대표적인 자료가 바로 민족지(Ethnography)자료이다. HRAF도 2008년 2월 1일자로 eHRAF 서비스를 시작했다. eHRAF World Cultures(<http://ehrafWorldCultures.yale.edu>)와 eHRAF Archaeology(<http://ehrafArchaeology.yale.edu>) 서비스이다. 이 자료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만으로도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가 있으며, 그만큼 이 자료집은 전 세계문화에 대한 자료를 망라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서비스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방대한 양의 정보와 자료가 축적될 것이고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 각각의 지역별 문화대전형태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문화권역별 혹은 지역별 통합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현재 한국학의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장점을 좀 더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의 분류체계는 생활문화보다는 문화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업초기에 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인 결과 00마을의 특별한 이야기 등과 같은 생활문화, 지역문화의 특질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현실적으로 축적된 자료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작업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예산, 사업기간 등)에 부딪혀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원자료로서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9)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10

10) HRAF(<http://www.yale.edu/hrf/>) 1949에 Yale University에서 설립한 연구기관이며 각 문화별 민족지자료와 고고학관련 자료를 집대성한 문서들이다. 자료의 형태는 책자와 microfiche, CD-Rom 등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1997년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서비스 하고 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정보기술이 가진 많은 장점들을 활용하여 만들어낸 향토지편찬방식을 보여준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에는 한국 향토문화관련 정보와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미 5년 이상의 사업수행으로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작업을 한 결과 사업초기와 비교해 보면 목록화작업의 세밀화 및 고도화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홈페이지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 개발이전부터 고심해온 부분인 목록 및 항목부분은 초창기 사전식 나열위주에서 벗어났 다양한 하위메뉴의 확장을 피하여 향토문화 아카이브로서의 자료의 다양성과 확장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 지역문화대전과 그 하위에 포함되는 「00마을의 특별한 이야기」와 같은 항목의 개발을 통해서 지역사람들과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하는 것과 동시에 기존 향토지에서도 문제점이 되었던 각 지역별 변별력도 생기게 된 것이다. 중앙정부차원에서 시행중인 향토문화 관련 사업인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시스템,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정보화시범마을조성 등과 견주어 볼 때 사업자체의 고유영역이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텍스트 위주의 기존의 향토지와는 분명한 차별성이 생긴 것이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정보와 지식의 보고로서 기존 학자들에게도 많은 자극을 준 것은 사실이다. 먼저 편찬시스템은 별반 차이가 없으나 그 결과물의 활용과 배포 부분은 책으로 만들어지는 종래의 향토지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텍스트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물과는 다르게 정보의 전달이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서비스 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매우 한정된 연구자 혹은 관공서, 도서관에만 배포되었던 향토지와는 다르게 획기적으로 정보와 지식의 유통이 변화된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지리정보 등이 담겨져 있어 텍스트, 음향,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최적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자료수집단계에서부터 종래의 자료수집, 조사방법을 탈피하여야 하는 점이 있다는 어려움은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와 조사자들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다. 단순히 텍스트 위주로 결과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멀티미디어 기술을 접목하여 활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홈페이지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다. 종래 텍스트 위주의 문화를 연구하는 것과 조사된 자료들을 사용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화를 시각화(visualize culture)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임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학문도 진화와 적응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2023년이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사업이 전국232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각 지역별 디지털지역문화대전도 각각 홈페이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홈페이지가 체계적으로 다양한 지역문화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 다양한 자료로 검색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 일지 모르겠지만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홈페이지의 역할이 좀더 변

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본다. 현재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는 사업초기단계인 만큼 사업과 관련된 자료와 관련된 공지사항이 메인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지역문화대전의 배너버튼은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디지털한국학,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향토문화아카이브검색시스템의 서브메뉴로 구성되어있다. 기왕이면 이들 사이트들과의 자료공유와 연계서비스 부분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다. 현재 한국학 관련 홈페이지는 아무래도 역사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국학의 특정분야에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특정분야를 연구하는 학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분야 이외의 분야에 관심 있는 학자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연구자들이 외면하게 된다면 훌륭하게 만들어진 아카이브의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방대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잘 구축된 아카이브들로 구성된 각각의 한국학 관련 홈페이지내의 자료들을 통합검색 할 수 있게 하여 한국학관련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한 검색창에 원하는 자료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각 분야 유관 자료가 나온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다양한 자료의 접근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나가는 말

매체기술을 활용한 연구에 인문학 또한 사회과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연구가 미진하다. 이런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인문학 콘텐츠들을 아카이브화 하는 작업에 대한 부분은 연구진전이 있다. 한국학에 대한 관심과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이와 같은 매체기술을 활용한 자료구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부분은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는 이어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텍스트와 평면 이미지로 채워진 지면이 아닌 하이퍼텍스트를 활용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동영상,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민속지 구현이 가능한 시기이다. 과거 책으로 다 보여주지 못한 다양한 문화의 기록화 작업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잘 훈련된 연구자의 손길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을 진행한지 8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기술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제 한국문화, 향토문화가 들어가서 살수 있는 집은 다 지어졌다. 수년에 걸쳐 반복된 작업을 통한 노하우는 축적이 되었고 이제는 잘 지어놓은 집안에 들여놓을 가구와 그것들의 배치를 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그들의 손에 의해 수집되고 정리되고 집필되는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을 하나 하나 그 곳에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에서 서비스되는 한국문화관련 자료는 원자료로서 특히 한국의 근현대 문화를 접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자료(Raw Date)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

필자들이 주관적인 관점을 최소화하고 자료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자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몫이다. 따라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은 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디지털 한국학 연구자료의 참신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업이며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한국학의 세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초석으로 매우 일조를 할 것이다. 동시에 21세기 새로운 한국학연구의 지평을 열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이 디지털한국학 아카이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학연구와 관련해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과 그것의 이용이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한국학관련 홈페이지들을 연결하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원하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한국학연구를 위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학자료를 보존하면서 인터넷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심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원문서비스가 가능한 서비스가 가능한 역사통합정보시스템과 현재의 한국문화를 잘 정리해서 만들어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홈페이지의 아카이브가 연계가 된다면 디지털한국학 아카이브로서 훌륭한 결과물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한국학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되므로 한국학의 저변확대에도 이바지하리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본 논문은 한국학 고유의 콘텐츠를 디지털화한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의 활용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았다. 지식과 정보는 유통목적에 따라 그 내용요소의 조직을 일정하게 할 필요도 있고, 자유로운 조합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¹¹⁾ 디지털이 중심이 된 한국학연구관련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며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이 완성되는 2023년에는 세계적인 디지털아카이브가 되는 것을 기대해 본다. 인문학과 정보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디지털아카이브의 활용은 다양한 디지털기술과 한국학관련 콘텐츠가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고 자료를 읽으면서 연구하던 환경에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보고, 듣는 것으로 연구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매체에 기록된 한국학자료들의 활용이 필요하다. 한국문화를 보게 해줄 수 있는 매체의 활용으로 세계적인 디지털한국학 아카이브로서의 역할과 한국학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대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11) 감현 앞의 책 p.259